

의상 디자인에 나타난 고저스 이미지에 관한 연구

이 언 영*(수원여자대학 영상산업학부 패션코디네이션학과 강사)

이 인 성 (이화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교수)

21세기 패션은 고정화된 미의 형태가 아닌 다양하고 복잡하게 어우러진 문화의 형태로 자리잡았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다 개성 있게 연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현대에 나타나는 패션 트렌드 이미지를 동경하고 모방하여 연출하고자 한다. 최근에는 감각적인 여성미를 장식적 표현으로 극대화시킨 고저스 이미지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트렌드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저스 이미지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인식 정도가 낮은 편이어서 고저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트렌드 이미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고 있는 고저스 이미지에 대한 개념 정리와 표현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패션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다양한 패션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패션 이미지의 한 형태인 고저스의 이해와 올바른 패션 이미지 연출 완성에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서울, 신도시 및 근교에 거주하는 20~40대의 여성 패션 전문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1998년~2003년 S/S, F/W 해의 컬렉션지를 중심으로 고저스 이미지의 표현 특징에 대해 본 조사를 2002년 9월 25일~10월 20일에 시행하여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으로는 5점 Likert로 측정하였고, 총 400부중에서 부적합한 누락 부수를 제외한 302부를 SPSSWIN 10.0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과 백분율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고저스 이미지는 화려한(M=3.9)→섹시한(M=3.73)→사치스러운(M=3.6)·환상적인(M=3.6) 이미지 순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고저스 이미지의 형태는 트리밍(M=4.02)→실루엣(M=3.84)→디테일(M=3.81) 순으로 평가되었다. 고저스 이미지의 트리밍은 반짝이는 광택을 지닌 장식이나 풍성한 털이나 술 장식으로 나타났고, 실루엣은 몸에 피트되거나 어깨, 가슴, 다리의 라인이 깊이 파인 각선미를 나타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디테일은 가슴이나 목선을 드러내는 네크라라인이나 칼라 등의 표현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고저스 이미지의 소재는 질감(M=4.14)→문양(M=2.83) 순으로 나타났다. 소재로는 라메나 벨벳, 트랜스패어런트로 평가되었으며, 문양은 꽃 문양이나 페이즐리 문양 등이 높은 수치로 평가되었다.

넷째, 면색의 20색상환을 측정도구로 사용한 고저스 이미지의 색상 평가에서는 붉은 보라(25.2%)→보라(24.8%)→노랑(15.9%)→남보라(7.3%)→남색(5.6%)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설문조사 결과는 각종 패션 정보사에서 제시한 현대 트렌드의 컨셉과 많이 흡사했으나, 트렌드에 제시된 아일렛이나 집업, 버클 장식이나 가죽등의 소재를 사용한 도발적인 스타일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패션 전문인들은 고저스 이미지의 의상을 고급스럽고 우아한 여성미를 나타내는 스타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